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느 3:1-5,20,31-32)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핵심은 리더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들의 출신 지역 이름, 그리고 이들이 건축한 지역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쉽 아래 약 4 Km의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맡아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성벽과 7개의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마음이 된 공동체 회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회복하며 무너진 곳들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공감대를 이루는 공통적 비전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에게는 공통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협력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 Km의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0 종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구역들을 맡아 재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하여 구역 구역들을 맡아 다 함께 재 건축하였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존중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축한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지역과 재건축한 지역을 기록한 것은 이들의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인정과 존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겸손입니다. 느3장을 보면 실재적으로 그 누구 보다 헌신하며 충성한 느헤미야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겸손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